

기획특집 Special Reports

노비의 꿈¹⁾

페루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가 1965년 케추아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 출간한 이야기를 존 비어호스트가 그의 책에 수록했다. 아르케다스는 이 이야기를 쿠스코 주 키스피칸치 지방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리마에서 들었다고 한다. 또한 적어도 쿠스코의 인류학자 오스카르 누녜스 데 프라도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노비는 '퐁고' (pongo)를 번역한 것이다. 대농장에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는 '콜로노' (colono) 중에서 순번제로 주인집에서 잠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퐁고' 라고 불렀다. 콜로노들은 자유민 신분의 원주민, 보통 자기들끼리 마을(comunidad)을 이루며 사는 원주민들에게조차 멸시의 대상이었다. 존 비어호스트에 따르면 '퐁고' 는 케추아어로 '문'을 뜻하는 '퐁쿠' (punku)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퐁고가 종종 문지기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퐁고는 주인집에 있는 동안 온갖 허드렛일을 다해야 했다. 주인집 하인들에 비해서도 미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노비의 꿈」은 하늘나라는 지주(주로 백인)들이 군림하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이러는 소망을 가장 천한 신분의 노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표출함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빈자들의 수호자 성 프란체스코가 하늘나라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1) 출전: John Bierhorst(comp.), *Cuentos folklóricos latinoamericanos: fábulas de las tradiciones hispanas e indígenas*, New York, Vintage Espanol, 2003, pp. 143-147.

어떤 사람이 주인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대농장의 농노였는데 주인의 대저택에서 노비로 일할 차례가 되어 가던 중이었다. 키도 작고 체구도 형편없고 의기소침해서 모든 게 불쌍사나웠다. 또한 옷도 다 낡고 해졌다.

대농장 주인은 그 사내가 저택 회랑에서 인사를 드리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너는 도대체 사람인가 뭐가?” 시중드는 모든 남녀 하인들 앞에서 주인이 그렇게 물었다.

노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 없이, 바짝 얼어붙은 눈망울을 하고 겁에 질려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어디 볼까! 설마 냄비 닦을 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빗자루는 다룰 줄 아나 모르겠네. 그 보잘 것 없는 손 가지고 말이야. 이 더러운 놈을 당장 데려 가게나!” 주인이 집사에게 말했다.

노비는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집사를 따라 주방으로 갔다.

그 사내는 몸집은 작았지만 힘은 여느 사람 못지않았으며, 지시하는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하지만 다소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어서, 어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또 어떤 하인들은 그를 동정했다.

“천애고아 같아. 차가운 달밤의 바람처럼 바짝 얼어붙은 눈망울을 하고 있고, 가슴에는 슬픔이 절절한 것 같아.” 주방의 메스티소 여인이 노비를 보고 말했다.

그 사내는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오로지 묵묵히 일만 했다. 밥도 조용히 먹었다. 그러면서도 시키는 일은 다 해치웠다. “예, 나리!, 예, 마님!” 만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아마도 그 사내의 겁에 질린 듯한 표정하며 다 닳아빠진 옷가지, 또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 때문에 주인이 그를 더욱 멸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날이 어둑해지고 다른 하인들이 주인집 회랑에서 아베마리아

기도를 드리려고 모이면 주인은 늘 모든 하인 앞에서 그 사내를 확대했다.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사내의 머리를 밀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툭툭 치고는 했다.

“넌 개야. 짚어!” 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짚을 수가 없었다.

“네 발로 기어!” 그러면 주인이 또다시 명령했다.

노비는 주인에게 복종하여 네 다리로 몇 걸음 기었다.

“옆으로 뛰어, 개처럼!” 대농장 주인이 계속 명령했다.

그 사내는 고원지대의 작은 강아지를 흉내 내어 달렸다.

주인은 온몸이 들썩이도록 너무나 흡족하게 웃었다.

“돌아와!” 노비가 네 발로 뛰어가 긴 회랑 끝에 이르자 주인이 소리쳤다.

노비는 옆으로 뛰어 돌아왔다. 몹시도 지쳐 있었다.

그러는 동안 노비와 같은 신분의 몇몇 하인은 가슴에 찬바람이 이는 듯 아베마리아 기도문을 천천히 외웠다.

“이제 귀를 쫑긋 세워, 비스카차²⁾! 넌 비스카차야!” 주인은 피로가 역력한 사내에게 명령했다. “두 발로 앉아. 두 손 내밀어!”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비스카차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노비는 비스카차가 기도를 드리듯 바위 위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똑같이 해냈다.

주인은 그를 발로 살짝 걷어차 회랑의 벽돌바닥에 쓰러뜨렸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자!”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인디오들에게 주인이 말했다.

노비는 몸을 조금 일으켜 세웠으나 자기 자리가 아니라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 사실 벽돌바닥은 그 어떤 이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하인들은 회랑에서 안뜰로 내려와 자신들의 처소로 향했

2) 쥐와 토끼의 모습을 섞어 닮은 포유류—웁긴이.

다.

“꺼져, 잡것아!” 다들 떠나면 주인이 노비에게 소리 지르곤 했다.

그렇게 매일같이 주인은 새로 온 노비를 하인들 앞에서 괴롭혔다. 억지로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면서 그 사내와 같은 신분의 농노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베마리아 기도시간에 회랑이 대농장의 모든 사람으로 가득했을 때, 또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그 노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노비가 또박또박 말을 했다. 노비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 두려운 기색이었다.

“주인님, 허락을 구합니다. 나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비가 말했다.

주인은 못 들은 척했다.

“뭐, 뭐라고? 방금 말한 자가 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나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노비는 거들 간청했다.

“어디 할 수 있으면 해 보거라.” 주인이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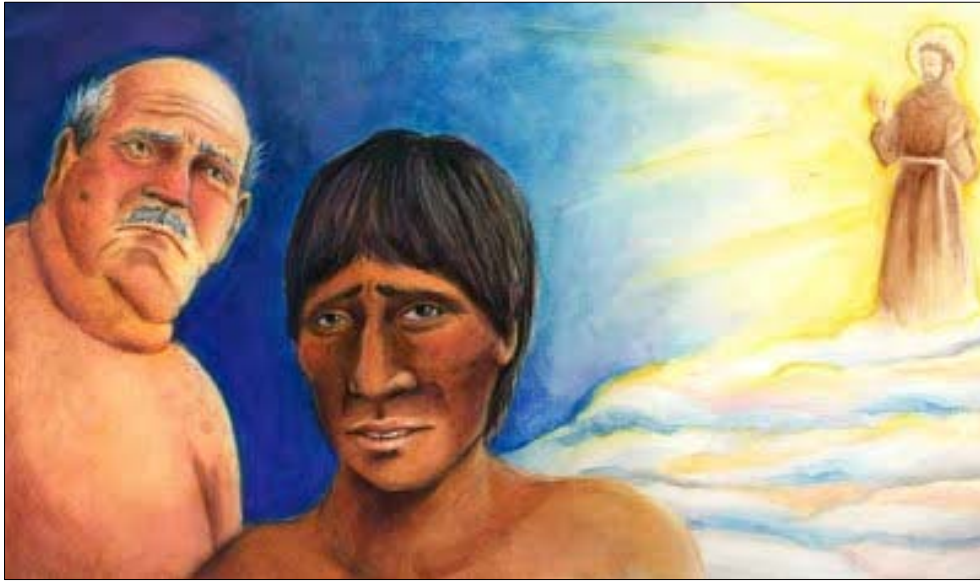
“나리, 친애하는 주인님...” 노비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제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인님과 제가 함께 말입니다.”

“나와 함께? 네가? 다 말해 보거라.”

“주인님, 둘이 다 죽은 사람이라 주인님과 저 모두 별거벗은 몸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 앞에 별거벗은 몸으로 함께 말씀입죠.”



비스카차



주인과 노비, 성 프란체스코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어서 말해 보거라!” 주인은 화가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계속 다그쳤다.

“우리가 죽어 별거벗은 몸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본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께서 어디까지 이르고 헤아릴 수 있는지도 모를 두 눈으로 주인님과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심장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재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은 부자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라 성 프란체스코의 그러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리.”

“그럼 넌 어찌 하였느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님. 저같이 하잘 것 없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좋다. 계속 말해 보거라.”

“그리고 나서 성 프란체스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는 이리 오너라.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작은 천사도 같이. 작은 천사는 최고로 영롱한 꿀을 황금 잔에 가득 담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주인이 물었다.

원주민 하인들은 노비가 하는 말을 꽤넘치 않고 들으면서도 웬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주인님,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께서 명을 내리자마자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와 성 프란체스코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꽃처럼 화사한 또 다른 작은 천사가 뒤따랐습니다. 양손에 황금 잔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주인이 다시 물었다.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께서 명하셨습니다. <큰 천사야, 이 양반 몸에 황금 잔에 든 꿀을 바르라. 깃털처럼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바르도록 하라>. 그래서 그 숭고한 천사는 양손에 꿀을 묻혀 주인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발랐습니다. 주인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니, 마치 황금빛처럼 영롱한 빛이 하늘의 광채보다 더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주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러면 넌 어찌 되었느냐?”

“주인님이 하늘에서 빛나고 계실 때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하찮은 천사는 이리 오너라. 인분을 담은 휘발유 깡통을 가지고>.”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비늘 투성이 다리를 하고 날개조차 지탱할 힘이 없는 쓸모없는 천사가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 앞으로 왔습니다. 꼬질꼬질한 날개를 하고 양손에 커다란 깡통을 들고 힘겹게 힘겹게 말입니다. 그러자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께서 명하셨습니다. <늙은 천사야 듣거라. 가져온 깡통 속의 인분을 이 사내의 몸에 바르거라. 온몸에 아무렇게나 냉큼>. 그러자 늙은 천사는 마디진 손으로 깡통에서 인분을 꺼내 되는 대로 발랐습니다. 마치 초라한 집 벽에 진흙 치바르듯이 말입니다. 밝은 하늘 아래 저는 악취나 풍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암, 당연히 그래야지.” 주인은 의기양양했다. “계속 말해 보거라! 그게 끝이더냐?”

“아뇨, 주인님. 이젠 서로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주인님과 저는 위대한 성 프란체스코 앞에 다시 같이 섰고, 그분은 우리를 또다시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깊숙이 들여다보셨는지는 몰라도, 온 하늘을 관장하며 밤과 낮을 하나로, 망각과 기억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 두 눈으로 말입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대들에게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도다. 이제 활아라, 서로 말이다!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바로 그 순간 늙은 천사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는 본래의 검은 색과 힘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께서는 자신의 뜻이 다 이뤄지기까지 감시하는 임무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신찬용 옮김]

신찬용 — 평택대학교 평택세계화연구원 교수